

## 군공항 유치지역에 1조 지원...광주시, 통큰 지원책 발표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지급·자족기능 신도시 조성  
 110만평 소음완충구역 추가 확보·소음대책 마련 등

광주시가 광주군공항 유치지역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오전 청사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군공항 유치 지역 지원책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제시한 지원책은 ▲1조 원 조성 지원 ▲햇빛연금 등 지역맞춤형사업 협의 ▲이주정착 특별지원금 지급 ▲자족기능 갖춘 신도시 조성 ▲광주시 공무원교육원 신축 등 광주 공공기관 이전 ▲소음완충구역 추가 확보·훈련시간과 비행경로 조정 협의 ▲농수축산물 우선 구매·광주시에 전용 판매장 설치 등이다.

강 시장은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 방안으로 우선 지역개발사업지원금은 당초 기부대 양여에 의한 차액으로 발표했던 4508억 원에 광주 시 재원을 추가, 1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제시한 1조원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최

대치라고 강 시장은 설명했다.

또 “군공항 유치의향서가 제출되는 시점부터 햇빛연금·스포츠아카데미·MRO산단·국제학교 등 구체적인 지역 맞춤형 사업은 유치의향서 지자제·전남도·중앙부처와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유치지역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해 가구별·개인별 이주정착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공공주택을 포함한 이주단지·영외관사·정주시설 등을 집적화시켜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일부 공공기관을 유치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강 시장은 “연간 5000여 명이 교육을 받는 광주시 공무원교육원을 유치지역에 신축하는 등 광주시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며 “이전 지역에는 110만 평(3636㎡)의 소음완충구역을

추가로 확보하고, 훈련시간과 비행경로 조정 등 국방부·공군본부와 협의해서 소음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유치지역 생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광주시 등지에 전용 판매장을 설치하겠다”며 “광주시는 새로운 군공항 유치지역이 미래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남도·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전이 현실화 할 경우 5조7480억 원에 달하는 군공항 이전사업비가 풀려 10조 원대 생산유발·부가가치와 5만7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더 많은 활성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 송정·도산동, 서구 상무동, 남구 대촌동 등 10개 동 주민 30만 명의 군소음 피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은 1964년 송정리 공군부대 창설과 함께 59년간 현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민간공항은 1948년 동구 학동에 광주비행장이 동지를 틈 이듬해 첫 여객기를 취항한 데 이어 군항이 들어선 1964년 1월 현 위치로 확장 이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광주시 제공)

현재 광주군공항 이전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은 전남 무안과 함평이다. 무안의 경우 주민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며, 함평은 오는 8월 주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치의향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의 통큰지원책이 예비 이전 후보지역의 유치 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슬비기자



### 국내 1호 화순탄광 폐광, 1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지역 경제에 큰 버팀목 사라져

을 절약할 것으로 산업자원부는 추산했다.

진한다. 그 첫 단계로 오는 30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화순탄광)의 문을 닫는다.

화순군 동면에 위치한 화순탄광은 국내 1호이자, 국토 서남권의 유일한 탄광이었다.

1905년 4월 첫 광업권 등록에 이어 1934년 6월 일제 하에서 본격 채광에 나서 그동안 전남 지역경제의 큰 버팀목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만성 적자 상태에 시달리는 한국석탄공사를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결정하면서 폐광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다.

화순탄광의 폐광은 연탄 수요 감소에 따라 국가재정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산업자원부 집계 결과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석탄산업 재정 지원에 2835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조기 폐광조치로 국가재정 1조원 가량

◆화순탄광은 어떤 곳

화순탄광은 국토 서남권의 유일한 탄광으로, 화순뿐만 아니라 전남지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한 때 화순탄광의 종사자가 1700여명에 달하고 70~80년대 연간 채광량이 70만5000t에 달할 정도로 활황을 이뤘다.

광부의 월급이 공직자들보다 많았으며 먼 소 재지 마을에는 극장이 들어설 만큼 번성했다.

총면적 307㎡, 갱도 길이 80km 규모의 화순탄광에서 생산된 무연탄은 높은 상품성을 자랑했다. 강원 삼척·영월·태백 탄광 등과 함께 국내 4대 탄광으로 꼽힐 정도로 채광량도 많았다.

번성을 이룬 만큼 어두운 그림자 또한 적지 않아 매년 암사나 갱도 붕괴 등으로 숨지는 광부가 속출했다. 화순광업소가 매년 9월

9일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합동제사를 지고 석탄산업 종사자 추모공원이 조성된 것도 그 배경이다.

◆지원 방안은

화순탄광 폐광으로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될 탄광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화순탄광 근로자는 263명으로, 광부를 평생 직업으로 삼아온 이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연쇄적으로 지역경제의 침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탄광 근로자들은 대부분 관련 기술과 면허를 갖고 있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미래가 불안하다.

산업부는 탄광 폐광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산업부는 당장 화순광업소 폐광 보상을 위해 올해 예산에 167억원을 반영했다. 보상금액은 기준급여(기본급의 100% 또는 월평균 임금의 45% 중 선택)에 남은 정년을 고려해

산정한다. 화순광업소 근로자 1명당 특별위로금과 전업준비금을 포함해 평균 2억6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지역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중심으로 부지 활용 방향을 담은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화순군은 올해 말까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화순 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기능성 HMR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폐광지역 주거환경 정비사업,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등도 추진된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 육성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중앙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수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건강한 밥상의 시작

## 청정엘로우시티 장성 먹거리